

## 《가랑비 가랑가랑 가랑파 가랑가랑》

# 시조의 기품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동시조집

글 김상욱 (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소설가가 쓰는 동화, 시인이 쓰는 동시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소설이나 동화, 시나 동시는 의당 같은 문학의 갈래들이다. 따라서 소설가나 시인이 어린 독자들을 향해 동화와 동시를 발표하는 것은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작가들이 저마다 시나 소설에서 이룬 성취를 이들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동문학의 특성에 관해 사려 깊은 성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동화와 동시는 작가의 입장에서 더욱 쓰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어른들의 문학은 작가가 자신의 내면에 깃든 목소리를 마음껏 표현하면 되지만, 아동문학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닿게 되는 어린이들의 마음 또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학적 성취와 나란히 독자인 어린이를 거듭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는 또 다른 측면이 복합적으로 뒤얽힘으로써, 더 한층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는 장르가 동화이며 동시인 것이다.

그러니 좋은 소설을 쓴 소설가, 좋은 시를 쓴 시인이라고 해서 그저 동화와 동시도 곧잘 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소설에서는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하였으나, 좋은 동화를 남긴 현덕과 같은 작가가 있음을 생각할 때, 소설과 동화, 시와 동시는 마치 소설과 시가 그러하듯 엄밀히 다른 장르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다행스럽게 박완서의 《자전거도둑》이나 이문구의 《개구쟁이 산복이》 같은 작품들이 있어, 아동문학이 더욱 풍성해졌음은 물론이다.

2. 그런데 며칠 전 나는 박완서, 이문구와 나란히 견줄 수 있는 또 한 분의 작가를 만났다. 시조시인인 정완영이다. 《가랑비 가랑가랑 가랑파 가랑가랑》이란 동시조집은 아흔을 바라보는 늙은 시인의 어린 시를 선보이고 있다. 1960년대 등단한 이래 지금껏 우리의 전통적인 시조를 현대화하는 데에 앞장 서온 시인으로서 동시의 세계가 그저 편안한 갈래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완영 시인은 시조의 격조를 놓치지 않으면

서도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동시의 바탕을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살려내고 있다. 그가 있어 동시조란 퇴화된 형식이 말쑥하게 새단장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 풀잎과 바람

나는 풀잎이 좋아, 풀잎 같은 친구 좋아  
바람하고 영겼다가 풀 줄 아는 풀잎처럼  
헤질 때 또 만나자 손 흔드는 친구 좋아.

나는 바람이 좋아, 바람 같은 친구 좋아  
풀잎하고 헤졌다가 되찾아온 바람처럼  
만나면 얼싸안는 바람 같은 친구 좋아.

풀잎과 바람이란 익숙한 자연과 친구를 나란히 견주어,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고 또 헤어지는 아이들의 일상이 잘 표현된 동시다. 동시조의 엄격한 율격조차 풀잎처럼 풀어내며, 바람처럼 되찾아오는 작품이다.

이뿐만 아니다. 그의 시편들은 한결 같이 고른 수준을 보여주며, 오감을 자연과 세상을 향해 열어두고 있는 아이들을 맑게 그려보이고 있다.

### 울 엄마 장독대

울 엄마 장독들은 하루 한 번 세수하고  
울 엄마 장독들은 하루 한 번 가슴열고  
바람 맛 햇빛 맛 버무려 꿀맛 같은 장맛 낸대요.

울 엄마 장독들은 하나는 오빠 닮고  
울 엄마 장독들은 하나는 나를 닮고  
서로들 보기만 해도 정이 짙짙 흐른대요.



《가랑비 가랑가랑 가랑파 가랑가랑》  
정완영 지음 | 사계절 | 91쪽 | 값 7,500원

엄마가 정성껏 갈무리하는 장독대, 그리고 서로 옹기종기 어깨를 닿을 듯 올망졸망 늘어선 장독들을 보고 떠오른 생각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 ‘세수하고’, ‘가슴열고’ 등의 간명한 비유, ‘오빠 닦고’, ‘나를 닦고’ 등의 화자의 마음을 밀어넣은 상상력 또한 돋보인다. 이들 동시조들 가운데 특히 아름다운 시편은 〈낮달〉이란 작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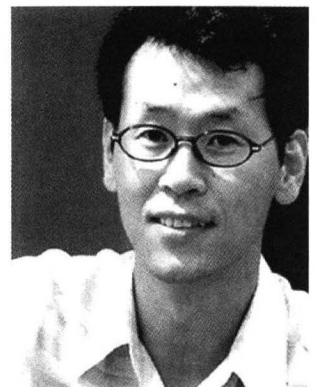
#### 낮달

엄마가 밭 매러 가고 내가 집을 보는 날엔  
우리 집 우물 속에 낮달 하나 숨어 살았네  
아무도 모르는 속내를 나랑 둘이 숨어 살았네.

학교 갔다 돌아온 날 어머니가 안 보이면  
우물 속 들여다보며 엄마! 하고 불러 보았네  
그러면 낮달이 찰랑, 원냐!하고 대답했었네.

굳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단순한 주제를 넘어, 시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좋은 동시조가 아닐 수 없다. 이제야 그의 동시조를 만난 과문함이 얼굴을 달아오르게 할 지경이다.

3. 한때 우리 동화, 동시 작가들이 소설가와 시인에 대한 심리적 열등의식을 가졌으며,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아동문학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돌아가신 이오덕 선생님이 질타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아동문학은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 단언할 수 있다. 오히려 처음부터 동화와 동시를 쓰겠다는 젊은 아동문학 작가들이 넘쳐난다. 물론 여기에는 아동문학의 상업적인 성공을 눈여겨 본, 발 빠른 계산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동문학의 발전에 힘 입어, 문학의 보편성과 아동문학의 특수성 모두를 견지한 좋은 작품들이 적지 않기에, 언제나 거울처럼 스스로의 성취를 비춰볼 만큼은 되었다고 자부한다. 정완영의 동시조 역시 더 없이 맑은 거울임은 물론이다. **\*\*\***



● 이 글을 쓴 김상욱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현재  
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와 독서문화시민연  
대 대표로 있다. 지은 책으로 《시의 길을 여는 새벽  
별 하나》 《숲에서 어린이에게 길을 묻다》 《어린이문  
학의 재발견》 등이 있다.